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	보도	8.14(화) 16시부터 보도가능	배포	2018.8.14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류 국 현(02-3145-6700)		담 당 자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662) 이 주 현 부국장 (02-3145-6702)	

제 목 : 「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/F」 Kick-off 회의 개최

- '18.6월,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
- 호주,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, 금융당국은 관계기관·업계 전문가로 T/F*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

* < 제 1차 T/F 개최 계획 >

- ▶ (일시·장소) '18.8.14(화) 16:00~18:00, 금투협 22층 중회의실
- ▶ (참석) 금융위 (T/F 팀장 : 자산운용과장)
금감원, 금투협, 예탁원, 업계(운용사·판매사) 등

※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(Asia Region Funds Passport)

- 한 회원국에서 “패스포트 펀드”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
- '16.4월, 아시아 5개국(한국·뉴질랜드·일본·태국·호주)간 ‘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’ 체결 ⇒ 회원국별 제도 마련 후 시행 예정

- 동 T/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,

-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임

☐ 또한,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

○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·세제, 개방형 판매채널
(예: 호주 mFund)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,

○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(설정·환매·결제)를 처리할 수 있는
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

☐ 앞으로 동 T/F에서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
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